

충격적 장면... 보고 또 보고

수만명의 일터이고 하루 15만명이 드나든다는, 거대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 순식간에 붕괴돼 버린 충격적인 장면, 사람들이 곡에 허둥 수심층 높에서 떨어지는 장면, 잇달아 폭삭 무너져버리는 주위 빌딩들...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일 뉴스시간마다 전파를 타고 있다. 보여주는 또 보여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되풀이해 보여준다. 워낙 전대미문의 사건이긴 하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그림으로 인해 수천명의 목숨이 희생된 충격적인 대참사가 한낱 영화 장면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그저 자극적인 불거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아이들이 즐겨 하는 컴퓨터게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대 관객

을 동원했다는 영화 '친구'도 그렇고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사' 등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까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살인장면들조차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등 극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예사로 나온다. 또 잔혹행위와 살상, 폭력의 묘사 수위도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엽기적이고 저속한 흥미위주의 불거림이 대부분 채워지는 대중매체인 영화와 TV 등에 중독되어 버렸기에 현대인들이 말하는 '생명존중, 인간존중'을 따를지만 정신적으로는 폭력, 범죄, 반윤리적 일탈 등에 무감각해지고 방관자적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년전 결투전 때 CNN으로 생중계된 전장장면을 마치 게임이나 영화를 보듯 한다는 '생명경시'와 '연장에 대한 무감각' 풍조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었다. 그렇기에 세계무역센터 붕괴장면이 영화처럼 눈요기 위주로 재구성되어 연일 반복 방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경숙 <취재1부 부장>

목탁소리

불교방송 PD들의 항변

불교방송 PD들이 '치우침 없는' 불교방송의 지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방송 PD협회는 11일 '치우침 없는 방송에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제작권 침해에 대한 제발 방책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으로 불교방송의 위상이 실추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김보 보도제작국장에 보냈다. 왜 제작 PD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지. 사건의 발단은 7일 김보 보도제작국장이 '아침저녁' 진행자 고운기 교수(일본 게이오대에)에 전화한 건에서 비롯됐다. 김 국장은 고 교수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아침저녁 프로그램 시간에 이 한동 총리의 잔류는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교육적서에도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교수가 담당 PD와 먼저 상의하라고 하자 김 국장은 즉시 '아침저녁' 담당인 안희경 PD에게 전화해 똑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불교방송 PD협회 간부들은 분노해

10일 김 국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신문의 논지도 이와 비슷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교방송 PD협회는 노동조합에 이 사건을 일임해 현재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상태. 노조는 제작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치우침 없는 방송'을 지향하는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에서 사건의 의견 조율이 일방적인 개인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려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더욱이 예민한 정치문제이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넘어선 발상일 수 있다.

불교방송은 어느 특정한 편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 아니다.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법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은 것일까. '치우침 없는 방송'이라는 지표를 방송국 근무자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 김주일 <취재2부 기자>

불교포럼 '기복불교의 대안'

한국불교를 낙후시킨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권행으로 굳어져 온 '기복불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왔고, 현재 대부분 사찰에서도 의례, 특히 재(齋) 지내기 중심에 크게 의존해 사찰 재

정과 운영의 밑받침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생고의 문제를 바로 보는 사성제 등을 공부하기 보다는 방편이란 편의에 안주하는 등 정법(正法) 교육의 부실이 기복적 기도로 일관하는 신행태도로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복 행위를 문제 삼기보다는 올바른 기도와 기복의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철학)는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김연규)이 1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열린 '기복불교의 대안을 찾자' 주제의 포럼에서 '기복불교, 제대로 하자'며 객관적인 '복(福) 채점표'를 만들자는 이색 제안을 했다.

토론회로 나선 정토행당 원장 유수스님과 공동주최자 유중호 교법사도 '기도의 바른 의미를 일깨워야 한다', '공덕불교로 나아가자'고 각각 주장했다.

편지자주

“福 채점표 만들자” “공덕불교로 나아가자”

주제발표 : 올바르게 복짓자

성태용 <건국대 교수·철학>

토론 : 기도의 바른의미

유수 스님 <정토행당 원장>



가리웠던 눈이 뜨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환희를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잠깐만 기복불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복짓는 일로 제시되는 것이 너무도 편협하고 치우치며, 불자들이 지니는 자위행위에 가까운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 복짓는 일의 실천을 통해 불교적인 참다운 삶을 맛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기복 행위의 목적항을 문제로 삼기보다는 수단의 항에 올바른 기복의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구난방의 추상적인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잘못된 기복의 악순환을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라도 객관적인 복 채점표를 만들어 보는 과감한 방안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단이

나 불교 언론이 중심이 되어 불교계 지도적 인사들의 복

짓는 일들에 대한 평가를 모아 발표함으로써, 너무도 치우치고 불합리한 기복 행태를 바로잡는 기점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일단 모아진 채점표를 통해 결과를 널리 알려 불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복짓는 행위를 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중단이나 계층, 신분에 따라 그 채점

이 크게 다르다면, 채점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정한 기복의 의미를 따져보면 된다.

불교계의 핵심이 진정한 대승불교의 이념으로 타율과 주변부의 조그만 일탈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복을 기원하는 대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불자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복을 문제삼기 보다는 제대로 된 기복을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올바른 기복 불교의 출현을 위해서는 일시적 방편으로라도 객관적인 '복 채점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불교계 지도층들의 체질을 종합한 복 채점표가 어느 정도는 이상적인 복짓는 일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낙관이 깔려 있다. 만약 그러한 조그만 낙관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교의 앞날에 희망이란 말을 쓸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 맞는 신행방법 찾자



현재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복불교는 나름의 역사적인 성과를 갖고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선 안된다. 예를 들면 조선 500년은 기복불교의 힘으로 지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유여불을 기초로 한 조선왕조의 탄압을 이겨내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스님들은 기복불교와 보살불교를 방편삼을 수밖에 없었다.

기복불교의 시대적 배경과 공과를 인정하는 한편 오늘날 현실에 맞는 바른 신행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토론 : 한치원 높은 신행

유동호 <광동여교 교법사>

복 빌지만 말고 복 만드는 노력을



기복 그 자체가 타파의 대상일 수는 없다. 복을 기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희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복불교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기복(祈福)'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복은 이제 실제로 복을 짓는 '작(作)'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5계 수지와 보시행을 통한 작복이 없이는 어떤 기복도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을 구하는 중생의 자연

스런 성향을 애써 절박하지 않고 그 마음을 승화시켜 보다 차원 높고 불교적인 이상에 부합하는 신행을 이끌어 주는 '공력(功德)불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력'은 선업의 과보로서 누리는 복락의 미를 넘어, 선업을 행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갖추어지는 능력과 덕을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복불교에서 공덕불교로의 전환은 한국불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자비실천하는 삶 수단 아닌 목적 부처님 닮는 삶

그러나 물질적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하여 세속적인 복락을 구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바람이다. 이 바람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괴로움들을 생로병사의 큰 괴로움에서 파생된 것임을 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로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떠나야 할 것이다. 기복의 잘못된 양상을 바로잡는 길은 기복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그런가? 문제가 되는 기복 행위의 수단이라는 항에 보시, 자비행, 봉사, 전법, ... 등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분명 가치의 전도가 있다. 목적의 항에 들어간 것 보다는 수단의 항에 들어가는 것들이야말로 불교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더욱 적합한 것들이다. 남을 돕는 삶, 자비를 실천하는 삶 등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자,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부처님의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힘입어 강조하여 기복의 양상을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다. 일단 복을 짓는 일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어, 올바르게 복짓는 일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 삶이 바뀌고, 불교의 모습이 바뀐다. 그리고 그러한 바뀌어 가는 삶과 불교의 모습이 현실의 욕망에

Advertisement for '삼정단' (Samjeondan) medicine. Title: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나?' (Where did the diseases of the modern era come from?). Content: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Signal of adult disease, Samjeondan). Description: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To understand the laws of the world's changes, you must know the laws of the universe...). Benefits: '혈액순환, 신장기능, 면역기능, 소화기능, 대사기능, 노화방지, 스트레스 해소,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三合)되어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고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는 분을 위해 삼정단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Price: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100원'. Contact: '상담문의 : 053-652-3300'.

Advertisement for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Osteoporosis, Arthritis, Rheumatism). Title: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Osteoporosis, Arthritis, Rheumatism). Content: '뭉그러진 뼈, 상어연골정제로 안전예방' (Shrunken bones, safe prevention with shark cartilage). Description: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안전 예방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Price: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Contact: '상담문의 : 02-790-8200'.

Advertisement for '마·가·목' (Ma-ga-mok) health supplement. Title: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Buddha's health secret, miracle efficacy). Content: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승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승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A Buddhist monk suffered from paralysis and health deterioration due to a full-body burn, but after 100-day prayers on Odaesan and receiving the secret of Ma-ga-mok from an old monk on Mt. Geomgangsan, he regained his health). Price: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Contact: '상담문의 : 031-771-1571'.